

5. 21세기에 등장한 장보고(張保臯)⁶⁾

KBS가 ‘해신(海神)’을 방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보고(張保臯)가 등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그에 대한 조명이 이뤄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8일에는 중국 산둥성 롱칭시 스텔(山東省 榮成市 石島鎮)에 장보고기념관이 문을 열고 그의 동상이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다. 장보고의 관심이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장보고는 8세기 말엽 신라에서 태어나 소년 때 친구 정년(鄭年)과 더불어 당(唐)나라로 건너가 무령군(武寧軍) 군중소장(軍中少將)이 되고, 뒤에 귀국하여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에 오른 사람이다. 드라마가 보여주

6) 『한라일보』(삼각봉), 2005. 05. 05 (목), 논설위원.

고 있듯이 그의 인생역정은 바로 희한한 드라마였다고 할 것이다.

장보고와 정년은 어릴 때 섬에서 자라면서 수영과 자맥질이 뛰어났고 무술에도 뛰어났다. 특히 장보고의 활 솜씨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놀라와 ‘활보(弓福)’로 알려져 있었고 정년은 물속에서 15리를 헤엄쳐도 지칠 줄 모르는 희대의 해동(海童)이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그들은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 지금의 강쑤성 쉬쩌우시(江蘇省 徐州市)에서 다 같이 군관이 되었다. 그 무렵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납치 해다가 노예로 파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그는 마침내 해적 소탕 결심을 하고 828년(신라 흥덕왕 3) 신라로 돌아왔다. 지금의 완도(莞島)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소탕전을 벌였으며 흥덕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1만 명을 동원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다. 그 흥성대던 해적들이 근절된 것은 물론이었다.

한편 그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의 힘을 빌리려는 손들이 뻗쳐오기 시작했다. 그때 신라는 국운이 기울기 시작할 때였으며 왕위계승을 놓고 심각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장보고는 얼마동안 그 같은 손들을 뿌리칠 수 있었고 중용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는 못했다.

837년 그는 그를 의지하여 피난해 온 전 시중(侍中) 김우징(金祐徵)을 돕게 된다. 이듬해 그의 정적 김명(金明)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말을 듣고는 정년에게 군사 5천을 이끌고 서라벌에 쳐들어가 김명(민애왕(閔哀王)) 일파를 축출하고 김우징을 왕[신무왕(神武王)]에 오르게 하였다. 그는 감의군사(感義軍使)에 봉작되고 2천호의 식읍(食邑·封土)을 받았다.

그 뒤 신무왕은 6개월 만에 죽고 그 아들 문성왕(文聖王)이 계승하였다. 그에게는 다시 진해장군(鎭海將軍)의 칭호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 몇 해 뒤 조정이 보낸 염장(閔長)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하고 만다.

이처럼 장보고는 신라말기에 역사를 움직인 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행적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남겨져 있다.

우선 그의 출생지도 밝혀진 것이 없지만 도당(渡唐)시기, 당에서의 활동, 교역활동, 외교활동, 딸을 비로 앉히려한 문제, 반란시도사건, 피살 시기 등이 모두 가려져 있다. 더구나 그를 암살한 인물이 염장이냐, 염문(閔文)이냐 아니면 동일 인물이냐 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옛 친구가 맞느냐 하는 의문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의문 가운데 하나는 제주도의 법화사(法華寺)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창건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13세기에 원(元·蒙古)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태종실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원(元)의 양공(良工)이 만든 미타삼존불상(彌陀三尊佛像)이 있었고, 사노비(私奴婢)가 2백 80인이나 되었다’ 든지 하는 대찰은 이때의 건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3세기 중엽에 증창한 기와명문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런 거찰이 있기 이전에도 법화사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장보고가 동북아의 해상을 누비던 시대. 그 십자로 상에 놓였던 제주도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